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2년 10월 30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14장 13-23절

설교제목 :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은 로마교회가 가진 특수성에서 발단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본 단락은 이 말씀의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이지만, 핵심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질의 훼손입니다. 주일성수의 훼손입니다. 예배의 훼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훼손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해 표어를 회복과 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회복하고 재건해야 합니까? 무너진 본질을 회복하고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비본질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본질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답을 제공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에덴의 삶으로, 레위기는 율법으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의 삶으로,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혹은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연결,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이란 연결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의 필연적 결과가 평강입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실존적 불안을 섬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을 채우고자 하지만 결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된 자는 이러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평강이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쾌락을 쫓아 삽니다. 쾌락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의 기쁨이요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이러한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빌4:4) 결국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에덴의 삶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과 이미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삽니다. 이것을 성경은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는 한마디로 고난

입니다. 고난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법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수1:7-8)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상황적으로 뭐든지 잘된다는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난 중에도 형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결국 십계명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롬14: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사실 바울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예배이고, 이웃사랑은 섬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나의 기쁨과 자기 만족과 자기 편리성만 남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를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십계명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에 성취할 수 있습니까? **롬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이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성취하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붙드는 싸움입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롬14:2-4)
- 2)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 3)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당신은 진정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